



광주일보-한국학호남진흥원 공동기획

호남 누정-광주 <1>프롤로그



호남의 누정은 역사와 건축, 학술 등 다채로운 의미가 투영된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사진은 광주의 대표 누정 풍영정.

유순하고 넉넉한 산야 찾아 우리 '누정'을 알현하다

휴식·사색·교육공간 역할 호남 누정 답사
광주 누정안에 깃든 역사·건축·학술 등
문화유산으로서의 의미 다채롭게 조명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흔히 듣는 말이다. 옛것이라 하여 가치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는 뜻일 게다. 앞선 이들의 지혜와 사유를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언제부터가 옛것은, 지나간 것은, 진부한 것으로 규정되곤 한다. 사실 화살처럼 흐르는 시간은 모든 것을 무화시킨다. 우리의 오늘 또한 머잖아 과거의 한때로 치부될지 모른다. 그럼에도 현재는 과거가 쌓아올린 주춧돌이라는 것은 변함없는 진리다. 마찬가지로 다가오는 내일은 지금이라는 시간이 떠받치는 명징한 현현일 게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지만 새로운 발전은 있다. 새로운 시각, 새로운 관점이 존재하는 것이다. 인문학을 비롯해 예술과 문화, 아니 우리 삶의 모든 이면과 결부될 수 있는 말이다. 그다지 새로운 게 없지만, 접근을 달리해보면 전혀 다른 가치와 대면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가.

봄이다. 어느 샌가 그렇게 봄은 우리들 곁에 와 있다. 그러나 언제 떠날지 모르는 계절의 속성이다. 아니 봄의 매력일 수도 있겠다. 이편의 마음을 마구 흔들여놓고 돌연히 줄달음쳐 가버리는 게 비단 봄뿐이겠는가.

더 늦기 전에 새로운 길을 떠나려 행장을 꾸리고 있다. 조금 지체하다간 어느새 정류장을 떠나 버리는 버스처럼 이 계절도 무림없이 지나가버릴 것만 같아서다.

남도 산하를 누비며 자연 속을 유람할 것이 남아 있다. 삼국사기를 비롯해 고려사, 세종실록지리지, 동국여지지도, 동국여지도 등의 기록이 이를 방증한다. 무엇보다 누정은 휴식과 사색의 공간을 대변한다. 풍광이 뛰어난 곳에 자리한 터라 선비들은 이곳에서 시문을 짓거나 벗들과 교유했다. 영산강 변에 자리한 풍영정(광산구 신가동)이 대표적이다. 구름과 바람이 사시사철 강물과 연하여 흘러가는 장면을 보노라면 절로 시심이 동할 정도다.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공간으로서의 역할도 담당했다. 서구 세하동에 있는 만귀정에는 '만귀정 원운'이라는 시문이 내걸려 있다. '자식 교육과 집안 다스리는 게 내 뜻이라네'라는 구절이 시사하는 것은 배움과 익힘의 중요성이다. 선조를 추모하고 추념하는 기능도 누정 집합의 근거였다. 유교가 국시였던 조선시대에 충과 효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덕목이었으니 누정이 그러한 역할을 담당한 것은 당연지사다.

이번 '호남 누정' 시리즈는 한국학호남진흥원(호남진흥원)과 광주일보가 공동으로 기획했다. 누구나 누정을 찾아 역사적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누정문화를 향유하도록 하자는 취지가 반영됐다. 궁극적으로 원천 소스 가운데 하나인 누정문화를 확장해 K컬처의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

진하는 일말의 목적도 담겨 있다. 이에 앞서 호남진흥원은 호남 누정원림 조사 연구사업을 10년에 걸쳐 진행하고 있다. 호남지역 누정 조사를 매개로 연구 성과를 집대성하고 콘텐츠 활용을 위한 밑그림을 차분히 그리자는 공감대가 있었다.

호남진흥원이 파악한 호남의 누정은 현존(1025), 비현존(1372)을 합쳐 2397개이다. 이 가운데 현존하는 광주와 전남은 747개, 전북은 278개이다. 호남진흥원은 이 가운데 70개소 누정의 영상과 사진, 해제 등의 기초자료를 지난 1년간의 작업을 통해 구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물론 이보다 앞서 호남한문고전연구실(현 호남지방문화연구원)이 광주와 전남에 소재한 누정과 사찰 1450여점 DB 구축하고 '호남누정 기초목록'을 발간하기도 했다.

이번 시리즈는 광주의 누정을 답사해 그 안에 깃든 역사와 건축, 학술 등을 모티브로 문화유산으로서의 의미를 다채롭게 조명하는 데 있다. 더러는 유가의 이상적 낙원으로, 더러는 주류정치에서 벗어난 격절의 공간으로, 사유와 교육 그리고 추모의 공간으로 이어져온 누정을 다시 보는 것은 앞선 이들의 지혜와 문화를 오늘의 시각으로 박차게 만나는 일일 것이다.

그 향해의 첫 발을 내딛는다.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질정을 부탁드린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사진=한국학호남진흥원 제공)



광주에서 향약이 처음 시행된 남구 칠석동의 부용정.



서구 세하동에 자리한 아은당.